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특허청
	보도	2019.11.28.(목) 09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담 당 자	김종식 사무관(02-2100-2864)
	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(042-481-5258)		문은정 사무관(042-481-5807)

**제 목 :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을 위한
업무협약 체결 및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**

- ◆ **지식재산(IP) 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금융위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의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**
- ◆ **IP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**

1 행사 개요

- 금융위원회(위원장 은성수)와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11월 28일(목),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「제2회 IP금융포럼」을 개최하였습니다.
- 이날 협약식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,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은행 은행장* 및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.

*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(6개 은행)

< 제2회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>

- √ (일시/장소) `19.11.28.(목) 09:00~/ 서울 63컨벤션 센터
- √ (행사개요) ①포괄적 업무협약(MOU) 체결 ② 주제발표
- √ (주제발표) ① IP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, ② IP담보대출 우수사례, ③ 한국형 일괄담보제 도입방안(IP이슈를 중심으로)
- ※ 제1차 지식재산 금융포럼 : `19.4.17일

2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

□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 술을 보유하고 있지만,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.

□ 지난해 금융위·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'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'을 계기로 금융권의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○ 먼저 양적으로는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*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, '17년 866억원, '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'19년 10월 기준 2,36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.

* '19년 5개 민간은행(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, 농협은행) IP담보대출상품 출시

** ('18) 63개 기업, 884억원 → ('19. 10) 372개 기업, 2,360억원

○ 또한,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

-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*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%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54개사 조사결과, 우량등급(BBB-이상) 기업보다, 비우량등급(BB+ 이하)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(49개사, 조사기업의 90.7%)

□ 그러나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 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, 최근 5년간 IP보증·담보·투자금액의 68%*가 서울·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특허청 IP가치평가연계 수도권 공급비중('15~'19.10, %) : IP보증(53.6%), IP담보(66.2%), IP투자(79.2%)

3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의미

- 이번 금융위원회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지역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, IP 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올해 10월부터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 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, 내년에는 여타 지방은행의 IP 보증 및 담보대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더불어, 제2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.
 - 먼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 과장이 'IP금융 현황과 정책방향 소개'를 통해 정부의 IP금융정책을 금융권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
 - 또한 신한은행 기술금융부 최진용 차장이 'IP담보대출 우수 사례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언'을 발표하였다.
 - 마지막으로 (주)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가 IP이슈를 중심으로 한국형 일괄담보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.

-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"IP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"이라면서,
 - "IP금융 활성화가 '혁신금융'으로 이어지도록 일괄담보 도입, 기술-신용평가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"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혁신 성장의 핵심동력이며,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.”라면서,
- “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,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·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밝혔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□ 개최 목적

- 금융위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의 포괄적 양해각서(MOU) 체결을 통해 IP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- IP금융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한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
 - ① IP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, ② 민간은행 IP담보대출 우수사례, ③ 한국형 일괄 담보제 도입방안(IP이슈를 중심으로)

□ 행사 개요

- 행사명 : “제2회 지식재산(IP) 금융포럼”
(IPFF : 2n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orum)
- 개최일시 : '19년 11월 28(목), 08:30~13:00
- 개최장소 : 63컨벤션 센터(서울 여의도) 4층 라벤더홀
- 주최/주관 : 금융위원회·특허청 / 한국발명진흥회
- 참석인원 : 총 120여명 (IP금융포럼 위원 및 관계자 등)
 - (내·외빈) 금융위원장, 특허청장, 보증기관 이사장, 은행연합회장 및 지방은행 은행장(부산·광주·제주·전북·경남·대구은행)
 - (주제 발표자) 정부, 민간은행, 민간기업 관계자 등
 - *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, 최진용 신한은행 차장 및 제이마이 크로 이승섭 최고기술영자(CTO), (주)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

□ 세부 진행계획

○ 진행 프로그램(안)

- (업무협약) 금융위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 MOU 체결
- (발표내용) ① IP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, ② IP담보대출 우수사례, ③ 한국형 일괄담보제 도입방안(IP이슈를 중심으로)

시 간	내 용
08:30~08:55(25')	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(다과 및 음료)
08:55~09:00(5')	개회 전 장내 정리
개 회	
09:00~09:15(1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 회 사 :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(3') ▪ 환 영 사 : 박원주 특허청장(6') ▪ 축 사 : 은성수 금융위원장(6')
[Session1 : 포괄적 양해각서(MOU) 체결식]	
09:15~09:30(1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(10') * 금융위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(신보/기보) 합동 체결 ▪ 기념사진 촬영(5')
09:30~09:50(20')	장내 정리 (VIP 퇴장 및 무대 세팅 변경)
[Session2 : 2019 IP금융 포럼 주제발표]	
09:50~10:10(20')	F4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: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 과장
10:10~10:40(30')	F5 IP담보대출 우수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(20') : 신한은행 최진용 차장, 제이마이크로 이승섭 최고기술영자(CTO) 질의응답(10') : 사회자 진행
10:40~11:00(20')	Coffee Break
11:00~11:30(30')	F6 한국형 일괄담보제 도입방안(IP이슈를 중심으로)(20') : (주)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 질의응답(10') : 사회자 진행
네트워킹 오찬	
11:30~13:00(9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주제
폐회 및 정리	